

# 늘봄



**여는글.** '늘봄'으로 찾아가는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Story.** 복지관의 조직도를 들여다보기

**Right to speak.** '늘봄'을 환영합니다

**Community.** 한국 최초의 뇌성마비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오뚜기하우스를 만나다

**Column.** '장애인'이란 이름에 대하여

**Partnership.** 2016년 복지관과 동행했던 자원봉사자님&후원자님



## 아침

뇌성마비장애작가 김영자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따스한 햇살이 보석들을  
바람에 마구 뿌립니다

창문 햇살이  
엄마 품처럼 포근하고  
개나리 가지 위에  
소복이 소복이

바람에 흩날려진  
빛의 울음  
정성껏 빗질하는  
당신의 손이

행복을 끌어내는  
아침입니다



### 따끈따끈한 '늘봄'이 나오는 곳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은

“뇌성마비장애인과 가족에게 언제나 희망과 행복을 전달”하고자 고객중심 서비스로 뇌성마비재활분야를 선도하는 복지관입니다. 뇌성마비장애인들이 자립하여 보다 나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기발견·진단·판정·평가를 통해 의료·교육·심리·사회·직업 등 종합적인 재활전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잠재능력의 계발과 권익증진을 도모합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주민과 뇌성마비장애인 상호간의 바른 이해와 인식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함으로써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축하글**

01. 꿈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늘봄'이 되길

**여는글**

02. '늘봄'으로 찾아가는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Story**

03. 복지관의 조직도를 들여다보기  
07. 사랑의징검다리 첫번째 손님. 사랑스런 허예슬양의 어머니 김윤정님의 이야기

**Right to speak**

10. '늘봄'을 환영합니다!  
11. '늘봄'의 생활 속 Tip!

**Community**

12. 한국 최초의 뇌성마비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오투기하우스를 만나다

**Column**

14. '장애인'이란 이름에 대하여

**Partnership**

17. 2016년 복지관과 동행했던 자원봉사자님&후원자님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소식지 "늘봄" 창간호 통권 1호

**발행일** 2016.12 **발행인** 정행건 **발행처**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편집** 기획팀

**주소**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6 **전화** 02-932-4412,5 **팩스** 02-932-4413

**이메일** srccp@hanmail.net **홈페이지** www.srccp.or.kr (QR코드 ▶)

**디자인&인쇄** 조은세상(02-439-4209,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늘봄"은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에서 뇌성마비장애인과 지역사회주민을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발간물입니다.



축하글



## 꿈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늘봄'이 되길

한국뇌성마비복지회장 최경자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소식지 '늘봄'은 뇌성마비장애인들에게 늘 봄날 같이 따뜻한 날들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는 늘 봄날 같이 따뜻한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과 함께 뇌성마비장애인들의 복지와 재활자립을 실천하고 지원하면서 오랜 동안 뇌성마비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제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은 치료와 교육중심의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모델로 전환되면서 다가올 우리의 나날들은 '생'보다는 '삶의 질'에 무게가 더 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은 뇌성마비장애인들의 권익 증진과 자립을 선도하는 복지관으로 눈부시게 성장하여 왔습니다. 성공적인 발전에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 열정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의 발전은 한국뇌성마비복지회의 회장으로서 뿐 아니라 뇌성마비장애 자녀를 둔 부모로서도 깊은 감사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의 미래 역시, 지나온 시간과 같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더욱 빛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늘봄'은 그 길의 안내자로 우리의 미션(사명)을 공유해줄 것이며, 더 넓은 사회와 뇌성마비장애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의 소식지 '늘봄'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또한 '늘봄'이 여러분의 꿈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 '늘봄'으로 찾아가는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 정행건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관장 정행건입니다.

우리 복지관은 1990년 12월 15일 개관 이후, 뇌성마비장애인들의 욕구에 맞추어 종합적이고 전인적인 재활전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뇌성마비인의 재활자립을 돕고 그들이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이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언제나 뇌성마비장애인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달하기 위해 우리 복지관이 달려온 시간 27년, 그동안 전국장애인 복지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오투기뇌성마비인주간보호센터 역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 받는 기쁨들을 안았습니다. 이 기쁨들은 이용고객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후원자와 직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낸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겨울, 복지관 소식지를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소식지를 통해 우리 기관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오랜 기간 준비해온 소식지가 뇌성마비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관련된 모든 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많은 분들이 우리 기관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보답하기 위해, 부지런히 성장하는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여러분을 찾아가갈 '늘봄'의 소식에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관의 조직도 들여다보기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은 올해로 27년, 9,855일, 236,520시간동안 여러분과 함께 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에는 정보화교육센터, 오투기뇌성마비인주간보호센터,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원센터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일곱 개 팀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이 궁금하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각기 팀별로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상담사례지원팀

복지관의 미녀 삼총사! **상담사례지원팀**은 '상담', '심리치료'를 주 담당으로 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상담사례지원팀의 친절 한 상담을 통해 복지관에 이용고객으로 등록이 가능하시구요. 그 뒤 개인에 맞는 재활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워 복지관을 착착!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치료도 함께 도맡고 있는데요. 개별치료 뿐 아니라 사회인지재활치료 등 그룹으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심리 프로그램, 직접 치료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심리안정 지원서비스' 등 뇌성마비장애인들 뿐 아니라 가족들의 정신건강 까지 살피고 있습니다.



가족문화지원팀

다음은 복지관 안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가족문화지원팀**입니다. 뇌성마비장애 아동·청소년의 놀이 터인 방과후학교에서는 방과후교실, 학습지도교실, 요리교실, 독서교실, 주말프로그램 등을, 성인 뇌성마비장애인들의 아지트 오투기글방에서는 작문교실, 외국어교실, 서예교실, 인권교육 등, 또 모두를 위해 보치아 교실, 축구교실, 볼링교실, 자전거교실 등으로 스포츠지원을, 밴드교실, 대보름행사, 장애인의날 행사, 크리스마스 행사 등 문화지원까지 알차게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관이 가족들의 휴식처가 되기 위해 부모힐링캠프, 부모스포츠교실도 함께 하고 있지요.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소식지

재가 뇌성마비장애인이 필요하면 어디든 달려가는 **지역권익옹호팀**! 문화예술체험, 명절나눔행사, 가족캠프, 뇌성마비장애인 가정지원, 풀뿌리뇌성마비인 단체 네트워크, 건강관리, 지역사회교류, 자원봉사, 장애인식개선 등 지역사회의 곳곳에서 뇌성마비장애인들을 위한 그물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교육센터가 속해 있어 뇌성마비장애인들이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등 PC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역권익옹호팀



## 직업지원팀

**직업지원팀**은 뇌성마비장애인들의 진정한 자립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뇌성마비 장애인들과 멀지 않은 단어가 되도록 개인이 가진 능력을 평가하고 도예 및 공예교육, 방송모니터요원 양성교육, 임가공 작업 등 다채로운 작업훈련을 통해 직업기술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취업박람회에 극 참여하여 트렌드를 읽고, 고용사업체 개발에 힘을 쏟아 새로운 직업군 찾아내고 있습니다.



## 기능향상지원팀

뇌성마비장애 재활분야의 일인자들만 모인 이 곳은 바로 **기능향상지원팀**! 전문적인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치과진료로 뇌성마비장애인들이 신체적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슬링운동치료와 보조공학을 이용한 AAC언어치료로 아동부터 성인까지 대상을 확대시켜 생애주기별 재활치료를 구현하기 위해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습니다.



## 기획팀

**기획팀**은 후원, 외부지원, 홍보, 조사연구, 사회교육 등을 맡고 있습니다. 후원자를 모집하고 복지관을 알리는 일 뿐 아니라 다양한 외부지원사업을 찾아내 뇌성마비장애인들에게 연결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팀이기도 합니다.

## 운영지원팀

복지관을 든든히 지원해주시는 어벤져스 **운영지원팀**에서는 인사, 노무, 회계, 시설관리까지 도맡고 있습니다. 늘 복지관이 청결하고 반짝거릴 수 있는 이유는 운영지원팀에 있었네요!





## 오뚜기뇌성마비주간보호센터



오뚜기뇌성마비주간보호센터는 성인 중증·중복 뇌성마비장애인과 주간동안 함께 합니다. 타인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훈련, 음악치료, 운동치료, 원예교실, 도예교실, 요리교실, 에코교실, 사회적응훈련, 캠프와 같은 야외활동 뿐 아니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의 주말 일정을 생각하여 주말주간보호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노원센터

평소에 필요한 보조기기가 너무 비쌌다거나, 성장기에 잠깐 사용하고 싶은데 구입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해보신 분들은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노원센터**의 보조기기 임대 서비스로 해결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참,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에서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관의 슬로건대로 언제나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모든 팀들이 다 같이 힘내겠습니다!



## 사랑의 징검다리 첫 번째 손님



우리는 늘 궁금했습니다.  
한 명의 뇌성마비장애인이  
어른이 되기까지의 이야기.

그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붙은  
"엄마"라는 두 글자에 담긴 이야기.  
치열하게 이겨내며 살아온 시간들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한 분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랑스러운 **허예슬양**의 엄마  
"**김윤정**"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징검다리는 뇌성마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양육 정보를 전달하고 화자와 독자 모두를  
격려하기 위해 기획된 기사입니다.

### 예슬이를 만나게 된 과정을 여쭙도 될까요?

모든 엄마들이 그렇겠지만 태교에 공을 많이 들였어요. 예슬이가 첫 아이라 더 그랬어요. 길을 지나다가 꽃향기가 좋으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가야, 이게 장미꽃이란건데...' 마치 아이가 태어나 곁에 있는 것처럼 대화하곤 했습니다. 육아 강좌도 부른 배를 이끌고 다 찾아갈 정도로 열과 성을 다했어요. 저는 이런 태교가 어휘력 발달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웃음) 그런데 임신 7개월쯤 되던 날,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급정거하면서 손잡이에 배를 부딪쳤어요. 배가 아프긴 했는데 드러나는 증상이 없어 집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 날 오후부터 뭉치는 느낌이 점점 심해져 결국 병원에 갔더니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1995년 5월 제왕절개로 1.2kg의 예슬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을지병원 산부인과 같은 병실에 지금 복지관의 박미순 과장님이 둘째 아이를 낳고 입원해 계셨어요. 제가 조산했다는 말을 들으시곤 소아과가 아닌 재활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당시에는 처음이라 잘 몰라 그냥 퇴원했었는데 발달과정이 조금씩 늦는 걸 보고 진단을 받았더니 뇌성마비였습니다. 복지관 같은 복지 서비스 기관은 알아볼 생각도 못했고 우선 병원에서 치료부터 시작했는데, 함께 물리치료를 받던 아동의 어머니가 상계동에 뇌성마비 전문 복지관이 있다고 보라고 권유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박미순 과장님도 다시 만나게 되었구요. (웃음)

**그동안 복지관에서 어떤 서비스들을 이용하셨어요?**

우선, 예술이가 아기였을 때는 일주일에 4번 복지관에 와서 치료를 받았고, 좀 더 커서는 오투기 유아교실을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입학해서는 복지관의 희망교실에서 학습지도도 받았어요. 방학특별활동교실도 방학 때 마다 이용했어요. 중학생 때는 스스로 심리치료를 신청하기도 했어요. 워낙 대화를 많이 나누는 모녀지간이라 자부하고 있어 놀랐지만 엄마한테 다 말할 수 없었을 거라 짐작하고, 오히려 객관적으로 생각해 치료를 요청하는 모습을 대견히 여겼습니다. 최근에는 대학 전공을 살린 복지행정 분야로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했었네요.

**이용했던 서비스 중 예술이에게 도움이 가장 많이 된 서비스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복지관 작업치료를 다녔어요. 그 때 복지관에서 해주는 부모교육에도 열심히 참여 했었습니다. 어느 날은 작업치료사 선생님께서 가정에서 하는 치료법을 알려주는데 레몬즙을 갈아서 거즈에 묻혀 혀 마사지를 해주면 좋다고 하셨어요. 그걸 잘 배워 때 맞춰 거르지 않고 해줬습니다. 이게 자극이 되었는지 아이가 침도 덜 흘리고 삼키는 힘도 강해졌어요. 얼굴근육마사지도 열심히 하고, 예술이가 지금 신체의 장애의 비례 언어장애가 별로 없는 건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춘기에 받은 심리치료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 예술이의 성장에 맞춰 적시 적소에 도움이 된 서비스들이었어요.

**일반 초·중·고등학교에 예술이가 입학했을 때 절차가 어땠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먼저 문의했습니다. 그러니 편의시설이 확충된 학교를 알려 주셨어요. 그중 집에서 가까운 학교가 마침 새로 생긴 곳이라 시설도 깨끗하고 편리하더라구요. 그래서 미리 공문을 부탁드렸습니다. 그 뒤에 교장 선생님을 만나 상담했지요. 그 때 공식적인 절차가 확실히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사실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을 받으려면 신경 써야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어서 학교 측에서 선뜻 입학허가를 내주지 않거든요. 또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서는 학기 전에 보조교사 지원을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봐야 해요. 예술이가 다니던 초등학교 바로 옆에 똑같은 재단의 중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미리 입학신청을 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습디다.

**예술이에게 학교생활에서 강조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학교 안 대인관계에 관해 저는 한 친구가 잘해준다고 그 친구에게만 도움을 청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는 예술이의 보호자가 아니거든요. 언젠가 부담을 느끼고 지칠 수 밖에 없어요. 여러 사람에게 부탁해야 친구들도 한번쯤이니깐 흔쾌히 들어주고, 그러면서 더 많은 친구들과 친해질 계기가 되니까요. 이런 관계유지 기술에 주의를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니까 아한테 상처가 되더라도 조금은 냉정하게 이야기해줘야 되겠더라구요. 당근보다는 채찍을 많이 준 엄마였던 것 같아요.



**대학을 가겠다고 결정했을 때는 어떻게 논의해주셨어요?**

일단 아이가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 했어요. 대학은 문예창작과와 복지행정학과 중 고민했습니다. 한참 고심하더니 중간지점을 고르더라구요. 예술이가 제게 상의해 올 때는 무조건 긍정적인 대답만은 안했습니다. 계획은 A, B, C. 이걸 다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한 가지 답만 준비해서는 안되니까요. 하지만 결국 선택은 아이의 몫이죠. 그래서 궁금한 것은 직접 찾아보게 했습니다. 어느 대학에 어떤 과가 있는지, 편의시설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은 모두 스스로 알아본 거예요. 또 오투기 캠프(한국뇌성마비복지회 주최 여름캠프)를 가서 만난 자원봉사자 언니들과 지금도 연락을 하면서 정보를 구하더라구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예요. 예술이와 하루를 같이 보내려고 제천에서 서울까지 올라 오시기도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튼 이 분들께도 객관적인 시선을 부탁드렸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껴주시는 분들이었기에 현실적인 조언을 주셨어요. 마침내 아이가 전공을 결정했을 때, 공부하던 책이랑 필기로 빼곡한 공책도 택배로 보내주시고... 덕분에 복지행정과를 선택해 매우 만족해 했어요. 2014년 여름방학에 노원구청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고나서는 목표가 더 뚜렷해 진 것 같아요. 이어서 복지관에서 행정보조 봉사활동을 한 걸 보면 말이예요. 중증장애인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었다는 자체로도 기특한데 힘들게 번 월급으로 제 반지도 선물해주고... 감동적이었어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 특히 뇌성마비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선 경험자로서 이것만은 양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점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과잉보호. 이건 진짜 안돼요. 부모라고 아이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불편하니까 모두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안전만 지켜진다면 일관성 있는 양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지 어릴 때는 모르는데 과잉보호해서 키우게 되면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없어질지 모르구요. 저는 예술이가 어렸을 때부터 과감하게 지도했어요. 혼자 앉아 있는 걸 힘들어해도 등을 받쳐주는 쿠션을 치우고 버티게끔 했어요. 그러다 아이가 뒤로 넘어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칠 때도 있었지만 최소한의 안정장치인 카페트만 깔아 두고 쿠션은 다시 주지 않았습시다. 예술이 아빠는 무식하게 키운다고도(웃음) 했지만 그래야만 버티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았거든요. 아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저는 가족들을 설득했고, 결국 우리 모두가 일관성 있게 예술이를 대하기 시작했죠. 육아에 정답은 없지만 인내와 시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가족과의 합의 하에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구요. 어렸을 때부터 자립습관을 길러줘야 장애인 당사자도 스스로 살아가고 가족들도 삶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나름 절박하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이란 어떤 곳인가요?**

가장 편한 곳이에요. 20년 동안 이용한 곳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그런지 집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무쪼록 복지관이 계속 발전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허예술양의 어머니 '김윤정'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자세한 인터뷰는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홈페이지 <복지관 소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늘봄을 환영합니다!

복지관 소식지가 생겼다니  
내용도 궁금하고 신기합니다!  
얼른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쁜 늘봄  
기대해요!  
-코은-

항상 감사해요  
신나는 복지관  
♡ 전서채

늘봄을 만날 우리 목소리를  
별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란~

축하드리고  
늘편하길  
친구처럼  
장영희

와?  
축하드려요  
감사해요  
-지유원

꼭 시립노년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 줘요. 사.정.을. 안.지.원.해.  
주신.분.이.는. 것.도. 많.습.니다. 이.제.  
선.생.자.는. 보.면.이. 더. 반.갑.습.니다.  
노.년.회.원.의. 최.대.의. 호.의.를. 받.고. 있.는.  
곳.이.기.라.는. 기.쁘.고.는. 다.들.이.들.이.  
있.는.지.는. 확.실.하.고.는. 기.쁘.고.는. 기.쁘.고.는.

늘봄 이름처럼  
봄빛 같은 친구의  
이야기 감사해요  
-권수애

정말이 오차는  
중요로운 멜로디를  
기척합니다  
김현주

늘푸른소식지  
축하드립니다  
기적현

늘봄을 만날 관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경하  
정말이 많이 들려  
주셔요..♡

소식지가 생겼어  
구체적 -김의옥

좋은소식지  
만화 비어기길  
문 706 기

축하드립니다  
박현민

2017년 1월 한 달간 서울시립노년복지관 페이스북에 올라온 '늘봄' 소식 아래 멋진 댓글을  
남겨주신 2분을 선정하여 기프트콘(까페라떼)을 드립니다.^^ (QR코드▶)  
※ 소식지를 집으로 받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기획팀 홍보 담당자(070-4347-9003)에게 신청하세요.



축하합니다  
좋은 소식  
유익한 소식을  
알려주셔서 감사  
합니다 -정미숙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늘봄님!  
언제나  
하늘 저 맑음  
처럼  
빛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합  
니다 -김현영

good News  
전해주신  
재정정보  
되세요!  
축하합니다.  
조두성

봉해산 가득한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광장이  
되어주길! -조성행

축하드립니다  
박유민

늘봄 하하하  
언제나 힘이 되어요  
감사합니다  
-홍명희

감사합니다  
소독 기대합니다

이은주  
발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연후영

축하드립니다.  
좋은일 대박  
좋은사연 반박이  
목려주세요(김재영)

축하드립니다  
좋은일로함께  
대박 나시  
류카 류카

늘봄  
성대인심수랑 재  
대인심수랑 재

즐거움 소식 기대  
합니다.

### '늘봄'의 생활 속 Tip! 겨울철 보조기기 관리!



1. 전동 이동 보조기기의 경우 동절기에는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으니 추운 곳에 장기간 보관하지 마시고 오래 사용하지 않을 때는 충전을 가득시켜 놓으셔야 배터리 방전에 위험이 없습니다.(완전 방전 시,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2. 보조기기를 물로 세척하실 때는 습기를 모두 제거하시고, 윤활유(WD)의 사용도 적극 권장합니다.
3. 소독 및 진드기 퇴치를 위해 햇빛이 있는 날에는 시트를 말려주세요.
4. 휠체어 타이어의 공기압은 적정 상태로 유지해주세요. 너무 팽팽하면 작은 자극에도 훼손될 수 있습니다.
5. 휠체어 바퀴 구동축에 이물질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 관리하세요.

## 한국 최초의 뇌성마비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오투기하우스를 만나다.

성인 남성 뇌성마비장애인 7명, 2014년 10월 처음으로 같이 살게 되었다.  
올해로 2년째가 되는 일곱 남자의 좌충우돌 동거기를 엿본다.



서울시 구로구 은수동의 SH빌라. 지어진지 채 3년이 안된 새 집에서 자립을 희망하며 보금자리를 꾸린 뇌성마비장애인들이 있다. 이 중에서는 고시원에서 홀로 지냈던 이도 있었고, 마흔이 넘었지만 한 번도 부모와 떨어져 본 적 없었던 이들도 있었다. 살아온 인생도 성격도 식성도 모두 다른 일곱명의 남자들이 모여 ‘오투기하우스’가 되었다.

SH공사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에 선정되었던 오투기하우스는 정인육복지재단에서 보증금을 후원 받아 입주 가능성이 있었고, 구로구 치과의사회, 서울시설관리공단 장애인콜택시 봉사단, 구로구청, 입주민 가족,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직원 등의 기부금 및 물품 기탁으로 가구와 가전, 세간살이들을 차곡차곡 채워 넣을 수 있었다. 오투기하우스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애정 어린 손길로 비로소 개소할 수 있었다. 2016년 9월부터는 ‘자립홈’으로 전환하면서 서울시로부터 운영비와 인건비 전반을 지원받아 사회재활교사의 지도 아래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입주민 전원이 뇌성마비장애인 직업재활센터인 나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어, 주5일 동안은 북적북적한 이곳에서 함께 한다. 8평형의 빌라 2채를 1,2호로 나눠 써, 모두 자기 방이 있지만 아무래도 성인 남자 일곱이 한데 모이다 보니 갈등도 생겼다.

설거지 당번을 정하는데만 한 시간이 걸릴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만형의 현명한 대처로 극복해내곤 한다.  
그래도 의견이 분분하면 입주자 회의를 통해 해결한다.

두 해를 같이 보내는 동안 추억이 많이 쌓였다.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해 투표도 함께 했고, 충주로  
봄나들이도 떠났다. 가끔 한강으로 다 같이 치맥을  
즐기러 가기도 하고, 영화도 종종 보러 간다.

생일날은 미역국을 나눠 먹고 주인공이 피자를  
살 때도 있다. 모두 나로센터에서 퇴근하고 나면  
이웃의 재능기부로 하모니카도 배우고, 미술,  
원예수업도 일상생활훈련과 겸해서 하고 있다.

식사 후 1시간 뒤에는 다 함께 스트레칭을 하며  
건강을 챙기고 구로구 의용소방대로부터 안전교육도  
주기적으로 받아 스스로의 신변을 보호하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다. 사회의 온정을 받았던 만큼 자신들도  
베풀고 싶다며 공동 저금통에 동전을 모으고 있다.  
다 모이면 매년 기부할 예정이라고.

이 모든 변화는 한 사람이 아닌 일곱이 같이해서  
일궈낸 힘이다. 오투기하우스가 행복한 이유기도 하다.  
함께 밥을 먹고 웃고 떠들 수 있는 가족이 이곳에 있다.  
한국 최초의 뇌성마비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인 오투기하  
우스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 공동체'를 탄생시켰다.  
서로의 언덕이 되어 주는 일곱 남자들이 따뜻한 'HOME'  
안에서 여느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살아가길 바란다.





## '장애인'이란 명칭에 대하여

'우리는 왜 장애인이라고 불리고 있지?', '장애인의 뜻이 뭘까?'라는 생각에 그 뜻을 한번 알아보았다. 우선 쉽게 생각해 보면 '장애인'은 한자어다. 한자로 장애인을 이렇게 쓴다. '障碍人' 한자는 뜻글자다. 글자 하나하나마다 뜻을 가진다. 그러니까 한자 '障碍人'은 세 가지 뜻이 합쳐져서 한 가지 뜻을 표현한다. 그렇다면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한자의 뜻은 뭘까?

보통 국어사전에는 명사 신체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비슷한 말] 장애자. 장애인 편의 시설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네이버 국어사전 발췌)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럼 바로 옆에 한자사전을 클릭해서 한 자 한 자 풀어보자.

### 障; 막을 장

1. 막다, 2. 가로막히다, 3. 장애 4. 보루(堡壘) 5. 둑 6. 병풍(屏風) 7. 발두둑길 8. 지경(地境: 땅의 가장자리, 경계) 9. 칸막이 가로막다. 또는 가로막히다.

### 碍; 거리낄 애

1. 거리끼다 2. 장애가 되다 3. 지장을 주다 4. 방해하다(妨害--)
5. 거치적거리다 6. 거북하다 7. 막다 8. 그치다 9. 해치다 a. 푸른 돌(의)

### 人; 사람인

1. 사람, 인간(人間) 2. 다른 사람, 타인(他人), 남 3. 딴 사람 4. 그 사람 5. 남자(男子) 6. 어른, 성인(成人) 7. 백성(百姓) 8. 인격(人格) 9. 낯, 체면(體面), 명예(名譽) 10. 사람의 품성(稟性), 사람됨





어쨌거나 이 한자어들을 종합해서 '장애인'의 뜻을 유추해 보면 장애인(障碍人)은 '가로막혀 거리키는 사람'이다. 우리가 평생을 달고 다녀야 하는 이 '장애인'이란 이름의 뜻이 이거란다. 어쩐가? 마음에 드나? 나는 절대 '아니다.'다. 우리가 가로막혀 꺼려지는 존재라는 애긴데 아주 기분 나쁜 명칭이다. 이런 이름으로 평생을 불리며 살아야 한다니 여간 찝찝하고 불쾌한 일이 아니다. 모르는 게 약이란 속담이 있는데 이런 데 필요한 것 같다.

이름대로 따라간다는 말도 있다. 그래서였을까? 장애인의 삶은 항상 막혔다. 평생을 골방 벽에 막혀 사는 장애인도 많고 평생을 시설의 장벽에 갇혀 사는 장애인도 많다. 거리에선 10cm의 턱에 막히기도 하고 계단에 막혀 되돌아가는 일도 수백 번 된다. 직장에선 '건강하고 용모 단정한...'이라는 문구나 능력과 효율이라는 자본의 논리에 막히기도 하고, 학교에선 수화통역사도 없이 음성만 윙윙대는 벽에 막히기도 하며, 장애인은 지금도 평생 짝 막힌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짝 막힌 장애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막히며 살아야 할까?

장애인은 소통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장애인과 장애인이 서로 소통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과도, 세상과도 소통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는 소통하는 존재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장벽으로 막고 있다. 세상은 우리를 장애인이란 이름으로 우리들의 소통하고 싶은 삶을 가로막았다.

이제 우리는 세상과 소통하며 함께 살고 싶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로막는 '장애인'이란 이름을 과감히 버리는 것은 어떨까? 우리는 스스로 장애인이란 이름 때문에 포기한 일도 많았다. '나는 장애인이니까 못해!'가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는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이라 뭐든지 할 수 있어!'가 되어야 한다.

## 도전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다른 이름을 지어보면 어떨까? 장애인이란 명칭이 오래전부터 법적인 용어로 쓰이고 있고 우리 자신도 장애인이란 명칭에 익숙해져 있어서 나의 제안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글을 읽고 '명칭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우리의 명칭이 다른 사람에게 더 긍정적으로 다가가려면 그만큼 긍정적이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도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들었다. 이처럼 우리를 부르는 명칭이 더 창의적이고 우리 스스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권익증진운동에도 더 많은 사람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창간호의 칼럼을 기고해주신 박정혁 활동가는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서 인권교육 강사로, 에이블뉴스의 칼럼리스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 2016년 복지관과 동행했던 자원봉사자님

뇌성마비장애인과 나눈 마음이 모여 14,771시간, 3,831번 더 즐거웠던 복지관이 되었습니다.  
(2016.10.31기준)



#### 개인봉사자

- CHENFANGHSUN, SHAJIE, 강경민, 강규나, 강금자, 강대숙, 강동우, 강명숙, 강범석, 강성모, 강양희, 강영자, 강유진, 강정훈, 계유진, 고강민, 고경택, 고근순, 고덕순, 고병옥, 고승이, 고영우, 고인옥, 고재덕, 공경희, 광숙례, 구나현, 구명근, 구은아, 구자환, 권대웅, 권미성, 권용일, 권효진, 기수민, 기재희, 김강수, 김경은, 김경태, 김규호, 김기환, 김나연, 김누리, 김다빈, 김덕순, 김도경, 김동렬, 김동환, 김돌경, 김명숙, 김명순, 김명자, 김명중, 김명희, 김미림, 김미숙, 김미순, 김미연, 김민경, 김민정, 김민철, 김민호, 김바다, 김범주, 김복순, 김부영, 김서연, 김선옥, 김성진, 김성봉, 김성연, 김성화, 김세아, 김소라, 김소민, 김소은, 김송자, 김수연, 김수정, 김수지, 김숙이, 김숙희, 김승근, 김승현, 김어진, 김언희, 김연숙, 김연주, 김영광, 김영무, 김영숙, 김영순, 김영태, 김영학, 김영희, 김예린, 김예음, 김우솔, 김유나, 김윤아, 김은영, 김은지, 김이준, 김인국, 김인순, 김인영, 김재성, 김재원, 김점남, 김정민, 김정숙, 김정은, 김정음, 김정현, 김종민, 김종선, 김준경, 김준수, 김지수, 김지우, 김지원, 김지호, 김진우, 김진주, 김찬영, 김 철, 김춘심, 김태형, 김학배, 김한규, 김한솔, 김한영, 김행순, 김현우, 김현제, 김형은, 김혜주, 김혜희, 김호남, 김홍범, 김효빈, 김효선, 김희정, 나예은, 나혜석, 남순희, 노미경, 노영균, 노점자, 노태수, 노하은, 노혜정, DAGGAHASI, 라현자, 류광호, 맹희규, 문광섭, 문병수, 민경환, 민수영, 민숙진, 민예원, 박가영, 박건영, 박건형, 박금란, 박나영, 박말순, 박명희, 박문강, 박민철, 박병주, 박보경, 박상곤, 박서진, 박선우, 박성규, 박세린, 박세윤, 박세찬, 박세현, 박소영, 박소은, 박숙미, 박승우, 박신미, 박영숙, 박영순, 박영연, 박영재, 박예지, 박유정, 박익환

박인서, 박재덕, 박재연, 박정미, 박정애, 박종현, 박주현, 박주혜, 박지영, 박지우, 박지은, 박초원, 박혜숙, 박혜진, 박효경, 박효진, 박희성, 배윤서, 백소영, 백유진, 백희영, 변도영, 변승희, 변영숙, 변우빈, 서강은, 서동현, 서병관, 서성민, 서숨이, 서재련, 서지은, 서지호, 서창민, 서태연, 석재우, 석지현, 설상옥, 설유정, 설평권, 성경아, 성승연, 성은옥, 손서희, 손양임, 손영배, 손유나, 손은지, 손의현, 송기영, 송민석, 송윤진, 송인숙, 송재혁, 송지유, 송지훈, 송혜은, 송희근, 신경미, 신경화, 신동선, 신수경, 신영채, 신영현, 신예지, 신재은, 신태진, 신희임, 심영재, 안가원, 안민혁, 안선영, 안선홍, 안세미, 안예원, 안지현, 안지환, 안채연, 안춘남, 안현범, 안혜민, 안혜림, 안희경, 양복자, 양승희, 양정우, 양치현, 양희난, 엄장민, 여경애, 염은홍, 오기동, 오기태, 오나나, 오나원, 오말분, 오승효, 오예은, 오진호, OKAMOTO, 오혜영, 옥상수, 왕아연, 용석달, 우윤희, 우정희, 우현정, 원찬빈, 위가현, 위길순, 위숙자, 유동건, 유성자, 유성훈, 유승아, 유용하, 유해인, 윤경아, 윤경옥, 윤민환, 윤봉선, 윤소빈, 윤승재, 윤승희, 윤영인, 윤영주, 윤정순, 윤혜원, 이경미, 이경복, 이경희, 이고은, 이광월, 이근진, 이공호, 이다은, 이도훈, 이동건, 이두희, 이라혁, 이만숙, 이미영, 이민섭, 이민중, 이민주, 이상민, 이서영, 이성규, 이성은, 이소희, 이수민, 이수연, 이숙자, 이숙희, 이순엽, 이순옥, 이순희, 이승수, 이승영, 이승철, 이승현, 이승환, 이승훈, 이승희, 이연주, 이영란, 이영서, 이영석, 이영식, 이예린, 이예진, 이요한, 이우진, 이웅기, 이유경, 이유정, 이유진, 이윤영, 이윤자, 이윤지, 이은섭, 이은숙, 이인숙, 이재원, 이정순, 이정현, 이종우, 이종태, 이주미, 이주현, 이준의, 이지민, 이지완, 이지원, 이지윤, 이지혜, 이재정, 이철우, 이태균, 이하준, 이현의, 이현주, 이현준, 이현진, 이현호, 이해리, 이해진, 임보규, 임서우, 임선규, 임성민, 임소라, 임연선, 임영옥, 임예은, 임원춘, 임은숙, 임창한, 임청현, 장명숙, 장민서, 장유빈, 장인근, 장정숙, 장준형, 장채원, 장춘하, 장혜은, 장희지, 전은서, 전춘희, 전한구, 전해성, 전해진, 정경심, 정다은, 정덕자, 정도영, 정복자, 정석봉, 정선미, 정성중, 정영훈, 정영희, 정예진, 정우성, 정원석, 정유경, 정유나, 정윤수, 정은미, 정은아, 정재진, 정주희, 정지원, 정지윤, 정하정, 정현순, 정호준, 정효선, 정희남, 정희재, 제윤수, 조규화, 조금옥, 조문주, 조미자, 조민정, 조민호, 조봉제, 조상원, 조서영, 조선희, 조성옥, 조성주, 조성행, 조성현, 조순권, 조영진, 조영채, 조유진, 조혜빈, 조호성, 조효영, 조희진, 지미숙, 지수정, 지현주, 진공자, 진상연, 채명자, 채민석, 채순자, 채해경, 천길진, 천수자, 최가은, 최경숙, 최경옥, 최명숙, 최민서, 최민혁, 최복순, 최수연, 최예인, 최예지, 최옥희, 최은서, 최인영, 최인희, 최재영, 최주연, 최지수, 최지윤, 최창덕, 최한나래, 최호진, 탁정금, 하연숙, 하요섭, 하현정, 한덕순, 한동석, 한동희, 한미숙, 한별아, 한상금, 한상아, 한성연, 한수연, 한찬희, 한혜원, 허다연, 허선영, 허순해, 허정순, 허진, 현주희, 홍성옥, 홍성호, 홍수자, 홍숙진, 홍승국, 홍정심, 홍준수, 홍지호, 화웅기, 황묘희, 황수민, 황옥선, 황재연, 황주연, 황지영, 황태규



### 단체봉사자

강북사랑의열매봉사단, 건설공제조합, 경희대학교치과병원 소아치과, 노원의용소방대, 대진대학교 간호학과 '초아', 롯데백화점 노원점, 비엔풍물연구소, 삼성SDS, 상계6·7동자치회관, 장애인콜택시, 정신여자고등학교, 포토그래피 '숨'



### 자원봉사 안내

나눔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원봉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키워온 사랑과 재능을 뇌성마비장애인과 함께 나누어보세요.

- ▶ 분야 : 문화·스포츠·직업 프로그램 보조, 학습지도, 보육, 가정결연, 식당, 재능기부 등
- ▶ 문의 : 방문, 전화(070-4347-9047), 홈페이지(www.srccp.or.kr) 지역권익옹호팀 자원봉사 담당자

# 2016년 복지관과 동행했던 후원자님

뇌성마비장애인들을 위해 후원금 96,401,321원,  
후원물품 5,668점의 사랑이 쌓였습니다.

(2016.10.31. 기준)



## 개인후원자

- 강가빈, 강경민, 강만희, 강명수, 강미나, 강민정, 강민찬, 강새아, 강수연, 강영호, 강예나, 강용숙, 강은미, 강전해, 강제이, 강철규, 강혜란, 경소은, 고민지, 곽명용, 곽유정, 구동희, 구정호, 권종을, 권 준, 권혁일, 권희성, 길승미, 김가영, 김건섭, 김경숙, 김경식, 김경아, 김경엽, 김관용, 김규석, 김금자, 김기환, 김나윤, 김도경, 김도균, 김도현, 김도형, 김동명, 김동현, 김동환, 김동희, 김륜경, 김명숙, 김명애, 김명화, 김문한, 김미경, 김미란, 김미선, 김미순, 김미현, 김미희, 김민서, 김바다, 김범주, 김병호, 김병훈, 김보경, 김상권, 김상환, 김석원, 김선식, 김선영, 김선우, 김선화, 김성일, 김소라, 김소영, 김수원, 김수일, 김순영, 김순자, 김영랑, 김영미, 김영아, 김영진, 김영헌, 김영희, 김예진, 김용현, 김우석, 김운기, 김원지, 김유진, 김윤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호, 김재삼, 김재선, 김정례, 김정숙, 김종민, 김종숙, 김주완, 김주용, 김주태, 김준형, 김중집, 김지원, 김지유, 김지호, 김진경, 김진우, 김진의, 김창기, 김창욱, 김철순, 김태민, 김태성, 김태영, 김태원, 김한철, 김해나, 김현성, 김현영, 김현우, 김현지, 김형남, 김형수, 김호준, 김희인, 김희경, 김희정, 김희진, 나성주, 나현승, 나현재, 남경모, 남영만, 노선영, 노재형, 노찬님, 도상화, 라관찬, 라기도, 라윤경, 라윤진, 목진웅, 목진원, 민경현, 민년기, 민찬식, 민혁기, 박계순, 박광민, 박규남, 박기선, 박기현, 박남수, 박도원, 박문강, 박미순, 박미애, 박민수, 박병권, 박병석, 박상민, 박상수, 박상용, 박상은, 박선희, 박소연, 박수진, 박수현, 박승희, 박애순, 박여진, 박영재, 박윤옥, 박윤조, 박인분, 박임숙, 박재준, 박정식, 박정원, 박정훈, 박종록, 박주하, 박준우, 박준현, 박지은, 박혜순, 박희숙, 박희재, 방문배, 배예찬, 배은서, 서강은, 서다은, 서예린, 서재희, 서정순, 서현민, 서현희, 석동휘, 선경아, 성민제, 성원석, 성준혁, 손경수, 손민정, 송다예, 송명수, 송양분, 송은숙, 송은연, 송재혁, 송종권, 신석현, 신용민, 신은미, 신정임, 신정희, 신주희, 신진아, 신춘옥, 신현철, 신호린, 신호정, 신희숙, 심명희, 심익보, 심정보, 심지연, 안갑순, 안경옥, 안다영, 안명화, 안소연, 안소희, 안신애, 안용민, 안지은, 안현준, 안혜영, 안효경, 안효정, 안효찬, 양동운, 양미정, 양승호, 양우권, 양정미, 양정희, 염명자, 염미숙, 염재명, 오경미, 오근호, 오명원, 오소연, 오수영, 오연서, 오영민, 오영수, 오재혁, 오정호, 오찬미, 왕미영, 이상훈, 이성민, 우연희, 우해중, 원희식, 유선미, 유성용, 유은영, 유재임, 유 진, 유태영, 육영애, 윤민환, 윤성완, 윤수현, 윤승휘, 윤여훈, 윤장남, 윤재명,

윤정열, 윤혜경, 윤희선, 이강천, 이경량, 이경호, 이계명, 이고은, 이기만, 이남철, 이다은, 이명수, 이명철, 이봉수, 이상미, 이상윤, 이서휘, 이선아, 이선호, 이성천, 이수연, 이숙희, 이순옥, 이순향, 이순희, 이승수, 이승재, 이연주, 이연훈, 이영식, 이영희, 이에은, 이에인, 이요한, 이용원, 이우진, 이우혜, 이원민, 이원석, 이은영, 이은정, 이은희, 이인구, 이재결, 이재혁, 이재현, 이정란, 이정미, 이종남, 이주연, 이주일, 이준의, 이지연, 이지영, 이지우, 이지윤, 이지혜, 이진옥, 이진용, 이진주, 이창호, 이춘양, 이춘희, 이태희, 이해우, 이혁수, 이현주, 이형근, 이해경, 이훈정, 이희자, 임경빈, 임남택, 임미남, 임보람, 임성은, 임성호, 임소정, 임수민, 임수영, 임수혁, 임숙경, 임영신, 임정규, 임정임, 임채린, 임하울, 임혜진, 장광윤, 장귀훈, 장기일, 장기창, 장기훈, 장길순, 장논산, 장미자, 장미정, 장미진, 장민호, 장서윤, 장선섭, 장양순, 장영승, 장영호, 장은영, 장태순, 장필환, 장현우, 전고은, 전병식, 전병윤, 전부영, 전예은, 전용일, 전정숙, 전종호, 전태영, 전해경, 전현정, 정경원, 정 근, 정금례, 정다은, 정덕자, 정명순, 정미자, 정석구, 정소영, 정수인, 정승민, 정양훈, 정연우, 정영구, 정예원, 정예지, 정예훈, 정유지, 정은성, 정은주, 정은희, 정재원, 정준모, 정지혜, 정행길, 정혜선, 정혜진, 정희경, 제담은, 조대연, 조범준, 조병숙, 조상원, 조서희, 조성민, 조유정, 조인호, 조재정, 주지희, 주한진, 진미화, 진은경, 진혜란, 차세광, 차정진, 차지애, 차하은, 차하준, 채만례, 채희정, 최경실, 최 권, 최금순, 최나혜, 최동민, 최미경, 최영민, 최윤정, 최재경, 최재영, 최정규, 최정선, 최정현, 최종호, 최지선, 최집선, 최현근, 최혜옥, 추병두, 탁성휘, 탁옥인, 표서윤, 표충의, 하승보, 한강희, 한상근, 한선희, 한정규, 한진수, 함경화, 허대승, 허은성, 현다은, 현도영, 현익환, 현진영, 홍선화, 홍아람, 홍준호, 홍찬호, 홍현대, 홍현호, 황경숙, 황계원, 황현우



### 단체후원자

(사)인카나누미, (주)강강술래, (주)블루레오, (주)코리아텔로스KD, 강서뇌성마비복지관, 건영옴니볼링센터, 국민은행 창동지점, 나눔브릿지(주)기브원, 노원교육복지재단,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대한적십자사 노원중앙센터, 롯데백화점노원점, 밀알복지재단, 방과후교실 자모회, 북부장래인복지관, 비타민엔젤스(주), 서울시북부교육청,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성민복지관, SOULSISTER, 아름다운가게, 아이들과 미래, 영화식품주식회사, 정신여자고등학교, 천애재활원, 체인지유어썬스(커스), 파리바게트 중계2동점, 푸르메재단, 하나마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장애인미술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오뚜기뇌성마비인주간보호센터 후원자

경병수, 경선애, 김민기, 김점례, 김 준, 박경희, 박상현, 박용숙, 박정애, 박종탁, 서장주, 신미선, 오문자, 위순덕, 이명자, 이민자, 이상욱, 이성기, 이용식, 이종거, 이지완, 이지용, 이창근, 이창성, 이철환, 이해경, 정대철, 정영수, 조인화, 주보경, 주정은, 주한일, 최미경, 한기숙, 한승용, 홍경래, 홍진규, 홍진아, 황금순



### 후원 안내

먼저 손 내밀어줄 당신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이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살아갈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 ▶ 방법 : 후원금(CMS,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모금함, 기타), 후원물품
  - ▶ 계좌 : 국민은행 841501-04-020275, 신한은행 100-024-899062, 농협 301-0001-4627-21  
우리은행 1006-780-201374, SC은행 231-20-379778
  - ▶ 문의 : 방문, 전화(070-4347-9004), 홈페이지(www.srccp.or.kr) 기획팀 후원 담당자
- ※ 후원금 및 후원물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Seoul Rehabilitation Center for the Cerebral Palsied



## 오시는 길

### 지하철

7호선 중계역 5번 출구

### 버스

지선버스: 1144, 1137  
간선버스: 146, 105, 102  
마을버스: 노원 09번

###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셔틀

지하철 1,4호선 창동역 1번 출구